



프로야구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 1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경기. 만원 관중 속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더 뜨거워진 흥행... 2년 연속 1000만 관중 주내 달성

지난해 사상 최초로 '꿈의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프로야구가 2년 연속 관중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18일 현재 2025시즌 KBO리그는 562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관중 1만7243명, 누적 관중 969만542명을 기록해 1000만 관중 돌파에 30만9458명만을 남겼다.

지난주 우천 취소로 4경기가 열리지 못했음에도 주간 관중 46만4997명이 들어섰던 점을 고려하면 기상 악화 등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 1000만 관중을 돌파할 것

누적 969만542명 경기당 1.7만 기염 우천 취소에도 주간 46만 구장 찾아 경기당 14% 늘어... "작년보다 더 흥행" LG vs 한화 선두 싸움에 팬들 열광

로 기대된다. 지난해 720경기에서 1088만 7705명이 입장했던 프로야구는 올해 더욱 뜨거운 흥행 행진을 이어 간다.

지금 추세라면 1000만을 넘어 1241만 명이 넘는 최종 관중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만5122명이었던 경기당 평균 관중은 올해 1만7242명으로 약 14% 증가했다.

이처럼 뜨거운 흥행 열기 속에 순위 싸움은 점점 치열해진다.

2강 체제를 구축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정규시즌 1위를 놓고 시즌 마지막까지 경쟁할 기세다.

또한 2위 이상까지 노리던 3위 롯데 자이

언츠의 8연패로 중위권 경쟁은 혼란에 빠졌다.

한화에 2경기 차로 앞선 1위 LG는 안방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LG는 롯데와 주중 3연전에서 최소 2승을 챙기고, 주말 KIA 타이거즈와 광주 3연전을 준비한다는 계산이다.

8연패에 빠진 롯데는 12위는 커녕 가을 야구를 장담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주말 3연전에서 4위 SSG 랜더스와 5위 KIA가 부진했던 탓에 간신히 3위를 지켰

지만 포스트시즌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한 주 대진표도 까다롭다.

먼저 주중 홈 3연전 상대는 후반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두산 베어스다.

두산은 KIA에 2연속 끝내기 승리를 포함해 주말 3연전을 싸늘이해 4연승을 달렸다. 순위는 여전히 9위지만, 이제 8위 삼성을 2.5경기 차로 쫓아갔고, 공동 5위 그

림과는 5경기 차다. 한화는 올 시즌 두산에 6승 1무 5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두산과 주중 3연전이 끝나

면, 주말 3연전 상대는 마찬가지로 걸끄러운 SSG다.

한화는 SSG와 이번 시즌 6승 6패로 동률을 이뤘다.

공동 5위 NC와 kt, KIA도 이번 주중 5명의 3연전을 치른다. NC는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kt는 수원에서 SSG와 대결한다.

지난 주말 3연전 내내 뒷문이 무너진 위기의 KIA는 리그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를 광주로 불러들인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 무릎으로 공 잡고 굴러서 잡고... 이정후 호수비 진기명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처럼,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는 글러브가 없으면 무릎으로도 공을 잡는다.

이정후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진기명기에 가까운 호수비를 펼쳤다.

이날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4

템파베이전 활약... MLB닷컴 "정후니(Knee)"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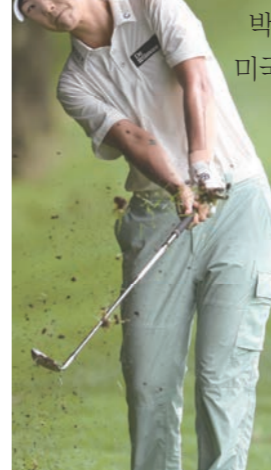


회초 템파베이 안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쫓아갔다.

오라클파크 우중간 외야에는 다른 구장과 비교해 더 깊숙한 공간이 있어 수비하는 외야수는 더 넓은 범위를 수비해야 한다.

워낙 3루타가 많이 나와서 '3루타 골목'이라는 의미의 '트리플스 앨리'(Triple Alley)라는 별칭도 있다.

## 6년 만의 LPGA 투어 탑10... 박성현 감개무량



박성현(31·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년 만에 '톱 10' 성적을 냈다. 박성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 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9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2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의 성적을 낸 박성현은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성현이 LPGA 투어 대회에서 10위 이내 순위로 오른 것은 2019년 8월 AIG 여자오픈 8위 이후 6년 만이다.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